

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의 허용성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고신대학교 의학부 정신과학 교실

유영금 · 반건호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김상윤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missiveness on moral transgressions and mental health

Young Kum Yoo, Geon-Ho Bahn

Department of Psychiatry, Kosin Medical College, Pusan, Korea

Sang Yoon Kim

Institute of Child studies, Kosin University, Pusan, Korea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egree of permissiveness on moral transgressions and their mental health. 191 adolescents of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from Pusan were presented with 14 multifaceted domains consisted of moral, conventional and personal transgressions. And their psychological symptoms were obtained by 'Symptom Checklist-90-Revision'.

Older adolescents(senior high schoolers) judged multifaceted events as personal and treated more permissible than younger adolescents(junior high schoolers). There were some disparities in their judgment between about story situation and about their own real situation; they judged more permissibly in their own cases than in story ones.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mental health and permisiveness on moral transgressions. This result indicated that in adolescents' domain distinction some psychological symptoms, which were underestimated by cognitive and intuitive moral developmental theories, seem to be related.

Key Word: adolescent, permissiveness, moral transgressions, mental health

서론

Kohlberg(1972)²³⁾의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은 청소년이 문화적으로 전수된 도덕규범을 수동적으로 내면화하는 점보다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반응수준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점을 중시한다. 아동은 성인으로 성장해가면서 벌과 복종 및 욕구충족적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인습 이전 수준)과 대인관계의 조화 및 사회질서 준수로서의 도덕성(인습 수준)을 지나 궁극적으로는 사회계약 정신과 보편적 양심에 기초하는 원리적 도덕성(인습 이후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 가운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인습 수준과 인습 이후 수준간의 이행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발견되는 퇴행 현상은 내용일 뿐 구조상의 퇴행은 없다고 한다.²⁴⁾ 발달적 이행기에서 경직된 인습수준을 벗어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표방되는 상대주의 때문에 퇴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인습 이후 수준에 통합되는 것으로 보인다.³⁶⁾

그러나 계속되는 종단적 연구결과들(김상윤, 1985; Holstein 등, 1976; Rest, 1975)^{5,21,31)}은 이러한 Kohlberg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Gibbs(1980)¹⁸⁾는 Kohlberg가 제안하고 있는 단계들 중 단계 1과 단계 2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의 인지구조적 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덕성이 합리성에만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는 형식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나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보다 직관적인 개념이라고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김상윤, 1992; Shweder 등, 1981)^{7,32)}.

이처럼 도덕성이 인습 이전 수준(개인 영역), 인습 수준(사회인습 영역), 및 인습 이후 수준(도덕 영역) 등의 순으로 미분화된 상태에서 순서대로 분화되어 나온다는 입장과는 달리 이들 수준들이 각각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며 개인이 어릴 때 부터 변별하고 있음을 주

장하는 모형이 제기되었다(Turiel 등, 1984)³⁸⁾. 그러나 이러한 영역 구분 역시 일정한 것은 아니며 발달적 영향 외에 문화적,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등, 1987)³⁵⁾.

정신과 영역에서는 정신장애와 도덕성 발달의 상관성에 관한 내용이 주된 관심이다. 남정현 등(1987)⁹⁾은 정신분열병의 경우 정신병적 혼란이 도덕발달 수준의 저하를 일으키나, 인격장애의 경우 도덕발달의 미숙으로 인하여 수준이 저하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습 수준과 인습 이후 수준의 이행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적 일탈행위의 허용성에 정신건강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결과 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허용성의 감소가 단순히 도덕판단 구조 발달의 부수물이 아니란 점을 밝히고, 정신과 임상에서 특히 품행장애와 성격장애 환자의 정신병리 접근에 일조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개관

1. 영역 구분이론

Nucci(1981)²⁷⁾나 Smetana(1981a)³³⁾는 유아들도 개인, 사회인습 및 도덕 영역을 이미 변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개인 영역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들로서 자아를 확립하고 자신을 보호해나가는 데 관한 것이다. 사회인습 영역은 사회적 행동 규범으로서 윗 사람에 대한 인사나 관혼상제의 예법 등이며, 도덕적 영역은 시대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생명의 가치, 타인의 행복, 신뢰, 책임감, 분배의 공정성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덕성의 영역 구분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해가는 과정에서 영역 구분이 모호하거나 또는 여러 영역의 성격을 공유하는 일

련의 다면적 영역(multifaceted domains)사태들이 발견되고 있다(Turiel 등, 1984)³⁸⁾. 예컨대 '낙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살인이 되어 도덕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부모 자신의 선택의 문제로 취급하여 개인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Smetana, 1981b)³⁴⁾. 영역 구분의 문화적 차이도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구 아동들은 '인사'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그러한 규칙이 정해져 있으므로 따라야 하는 사회인습적 행위 양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 아동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관습이나 규칙이 없더라도 본질적으로 나쁜 도덕적 행위양식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도덕화현상은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송명자 등, 1987)¹²⁾.

2. 영역 구분의 변화와 비허용성의 감소

Turiel(1983)³⁷⁾은 영역에 있어 몇 가지 국면을 제시하면서 도덕과 인습의 조화 국면에서 발달 경향을 갖는다고 했다. 이처럼 인습, 도덕 양자의 분리보다 '양자 조화'의 범주에서 발달 경향을 인정한 점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조화 내지 재통합의 특징을 부정(否定, negation)으로 본 점은 영역 구분이라는 것도 하나의 태도에 관련되는 것으로 도덕습관의 강도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Park(1989)²⁸⁾의 연구에서 동일한 사태를 신입생은 도덕영역으로, 졸업생은 인습영역으로 개념화하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인지적 도덕 발달 이론에 입각하여 이미 이루어진 종단적 자료(송명자 등, 1992)¹³⁾에서는 도덕성 수준이 평균이상으로 높은 집단에 한하여 2년간 도덕사태의 영역 구분 양식이 이론적 구분양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증거를 구한 바 있다. 그 밖에 대학생이 국민학생에 비해 사회인습적 사태와 도덕적 사태를 분명하

게 변별하고 있음도 확인된 바 있다(김상윤, 1990)⁶⁾.

이러한 영역을 구분하는 준거 중 하나인 비허용성은 특정 사태의 일탈행동을 '나쁘다'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영역보다는 인습 영역을, 인습 영역보다는 도덕 영역을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Song 등, 1987)³⁵⁾.

김상윤(1990)⁶⁾의 종단연구에서는 8세된 아동이 12세가 되었을 때 일탈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규칙이 없으면 괜찮다'라는 반응이 오히려 증가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도덕영역의 일탈행위에 대한 비허용성이 감소됨을 보이는 것이다. 역시 같은 연구의 횡단적 자료에서는 6세와 12세 아동에 비해 21세의 대학생들은 비허용성이 더 적었다. 따라서 인지구조의 발달 이론에서처럼 영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도덕습관의 포기 내지 약화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영역 구분에 관련되는 변인들

가. 정신건강과 비행

서울 시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광일 등, 1983)²⁾에서 89% 이상의 학생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적응상 곤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er 등(1987)²⁹⁾은 아동기에서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한 경험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정신병리나, 비행, 범죄 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했다. 문은영 등(1994)¹⁰⁾은 또래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또래로부터 무시되는 집단이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을 가장 많이 느꼈으며, 논쟁거리인 집단과 배척받는 집단의 비행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또한 이춘재 등(1994)¹⁵⁾은 청소년의 정서상태, 사회문제 대처능력 등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춘재 등(1991)¹⁶⁾은 국민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7개 연령집단을 분석한 결과, 정서상태, 정신상태, 가족관계, 친구관계, 대처능력 등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했다. 청소년 초기가 되면서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연령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연령 증가와 심리 사회발달이 비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빠른 성숙자가 심리적으로 더 많은 문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춘재 등(1991)¹⁶⁾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경우 성숙이 빠른 집단이 성숙이 늦은 집단에 비해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은영 등(1994)¹⁰⁾은 일탈행위에 대한 비허용성의 정도에서 청소년 또래집단에서 인기집단에 비해 배척집단에서는 '싸움을 먼저 건다', '악을 올린다' 등의 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허용성이 더 많았다.

이나영 등(1989)¹⁴⁾의 범법자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감자 집단의 경우 도덕발달 과정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감호 집단의 경우 정신병 발병으로 도덕발달이 저하되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나. 자타 격차와 성차

Piaget(1932)³⁰⁾는 이미 아동이 남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는 결과만 고려하는 도덕 현실주의자가 되지만 자신의 것을 판단할 때는 동기를 고려하는 도덕 상대주의자가 됨을 지적한 바 있다. Keasey(1973)²²⁾는 이러한 가설을 유치원 아동과 국민학교 1학년 아동에게서 확인한 바 있다. 이는 7세 이전의 아동이 이미 도덕판단에서 자타의 경우를 변별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보편성을 강조하던 1970년대의 구조주의 패러다임에 막혀 크게 강조되지 못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되었다. Leahy

(1983)²⁶⁾는 자아상의 격차 즉, 현실적 자아상과 이상적 자아상의 격차가 클수록 도덕발달의 수준이 높다고 했다. 권영숙 등(1988)¹¹⁾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치료감호 환자의 역할수용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결여되어 있어 자타격차가 적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김상운(1984)⁴⁾은 Kohlberg의 도덕 판단 발달의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이행기에 이러한 자신과 타인의 판단에 대한 격차를 확인한 바 있다.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에서 자타격차가 크다는 사실보다 특정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행기에서 자타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은 두 가지 단계가 혼재되어 있는 동요현상(動搖現象)이 이행기적 특성이라고 보는 입장(송명자, 1979)¹¹⁾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성차(性差) 역시 도덕성 분야에서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 Piaget(1932)³⁰⁾와 Kohlberg(1972)²³⁾의 인지적 도덕 발달 이론에서는 도덕 발달에 있어서 성차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적인 편견이 도덕 판단 발달의 준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Gilligan(1982)¹⁹⁾의 이론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도덕성의 성차는 도덕성 이론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예컨대 Freud(1932)¹⁷⁾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에서 남아의 도덕성이 여아의 도덕성에 비해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Hoffman(1984)²⁰⁾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도덕규범을 어겼을 때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차도 자타격차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남녀간의 비교에서 비롯되기 보다 발달의 정도나 문화적 속성들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관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실시방법

부산시 소재 남자중학교 2학년 1개반 51명,

여자중학교 3학년 1개반 51명,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1개반 41명,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1개반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 중학생은 14.22 ± 0.48 세, 여자 중학생 15.15 ± 0.30 세, 남자 고교생 17.16 ± 0.28 세, 여자 고교생 17.15 ± 0.27 세였다. 실시방법을 연구자로부터 교육받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자습시간 중 30여분간 집단지필검사로 실시하였다. 검사문항들은 대체로 이해가 쉽고 응답하기 평이한 것들로 구성되었으므로 검사내용에 관한 특별한 질문이나 실시방법에 관한 문의는 없었다.

2. 검사 도구

1) 정신건강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광일 등(1984)³⁾이 번안한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 한국판 간이정신진단검사)을 정신건강척도로 사용하였다. SCL-90-R은 피험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제공해주고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일차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문항이 쉽고 문항수가 절제되어 있어 실시시간이 20여분 정도로 짧고,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CL-90-R은 9개 증상차원의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증상차원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증,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으로 구성된다. 피험자는 검사 당일을 포함해서 과거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 '약간 있다'(1점), '웬만큼 있다'(2점), '꽤 심하다'(3점), '아주 심하다'(4점)의 5단계 평정을 하게 되어 있다.

2) 도덕영역에 대한 구분 및 비허용성 검사 도구

Turiel(1983)³⁷⁾의 영역 구분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문항들을 기초로 도덕 영역, 사회인습

영역 및 개인 영역을 섞어서 만든 14개의 사태를 문항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사태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게 하였다. 하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피험자 자신이 그러한 사태를 만나게 되었을 때의 경우로 하였다. 다음은 검사 도구의 설문 예이다.

다음 이야기를 읽고 개인적인 문제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O 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도덕적 문제로 나쁘다고 생각하면 X 표 하시오.

경숙이는 일요일이 되면 텔레비전만 봅니다. 평소에는 학교 공부 때문에 실컷 못 보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만 볼 때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경숙이라면 어떠합니까?()

민숙이는 어른들께 공손히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지나갈 때에도 웃기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

만약 내가 민숙이라면 어떠합니까?()

화숙이는 책만 읽어야 하는 도서관에서 책은 읽지 않고 숙제를 합니다. 그것도 친구들을 데리고 여럿이서 이야기해 가면서 숙제를 합니다.()

만약 내가 화숙이라면 어떠합니까?()

연구결과

1.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별 간에는 허용성의 득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녀를 통합할 때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1). 즉,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설문에 제시된 일탈행위들을 개인 및 사회인습 영역으로 구분하여 허용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정

도가 크다.

2. 설문에 제시된 일탈행위들을 허용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입장(doa)에서 보다 피험자 자신의 입장(dob)에서 판단할 때 더 높게 나타났다(표 1-2). 구체적으로는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그러한 격차가 더 많았다.

3. 정신건강 척도의 9가지 증상 득점에 대한 성별 및 학교간 차이(표 2).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규준집단의 득점에 비해 차이가 나는 것은 남자고교생의 '강박증' 득점이 높았고, 남녀 고교생 모두에서 '공포'득점은 규준집단보다 낮게 나왔다. 남녀별, 학교별 이원변량분석 결과에서는 전체 9개 증상의 합계에는 남녀간 및 학교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간에 차이가 있는 증상은 신체화 및 강박증으로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로 구분하였을 때 강박증, 대인민감, 우울증, 적대감, 편집증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모든 하위집단에서 동일하게 중학교에서는 여자가, 고등학교에서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4. <표 3>에서는 설문에 제시된 14개항의 일탈행위들을 도덕영역보다는 개인영역 내지 사회인습영역으로 보아 '괜찮다'고 반응하는 허용성의 정도를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9개 증상득점들을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전체 득점의 평균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9개 증상에서 모두 허용성 상(上)집단의 득점이 허용성 하(下)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공포불안 득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증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 허용성# 비율의 학교, 성별간 평균(표준편차) 및 이원변량분석표 (I)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F		
	남(n=51)	여(n=51)	남(n=41)	여(n=48)		성별	학교	상호작용
	.32(.18)	.29(.15)	.37(.15)	.37(.11)	.33(.15)	.70	11.05**	.55

: 이야기 속 주인공의 경우(doa)와 피험자의 경우(dob)를 합친 '괜찮다' 반응(28문항)의 합을 28로 나누는 것으로 '나쁘다'는 0점, '괜찮다'는 1점. 이론적인 득점 범위는 0에서 1까지이다.

** $P<.01$

〈표 1-2〉 허용성@ 비율의 학교, 성별간 평균(표준편차) 및 이원변량분석표 (II)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F		
	남(n=51)	여(n=51)	남(n=41)	여(n=48)		성별	학교	상호작용
doa	.29(.20)	.21(.16)	.33(.19)	.38(.15)	.30(.18)	1.08	18.71**	6.59*
dob	.34(.22)	.36(.20)	.41(.15)	.37(.15)	.37(.19)	.13	1.53	1.48
t	1.52	5.08**	2.98**	.44	4.46**			
(df=190)								

@: 이야기 속 주인공의 경우(doa)와 피험자의 경우(dob) 및 이들간의 차이검증

* $p<.05$, ** $P<.01$

〈표 2〉 정신건강척도의 9개 증상특점에 대한 학교 및 성별간 이원변량분석표

증상\집단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F		
		남(n=51)	여(n=51)	남(n=41)	여(n=48)	성별	학교	상호작용
신체화	.67(.48)	.50(.41)	.69(.48)	.78(.47)	.72(.53)	1.14	4.41*	3.42
강박증	1.42(.74)	1.17(.78)	1.44(.65)	1.77(.70)⁺	1.35(.72)	.27	5.59*	10.77**
대인민감	1.19(.75)	1.05(.73)	1.21(.74)	1.46(.83)	1.09(.66)	.66	1.47	6.19*
우울증	1.07(.80)	.77(.66)	1.22(.80)	1.24(.91)	1.09(.76)	2.39	2.05	6.95*
불안	.81(.79)	.68(.76)	.86(.90)	.91(.73)	.79(.75)	.10	.38	1.67
적대감	1.01(.90)	.85(.80)	1.12(.85)	1.27(1.06)	.86(.87)	.14	.24	6.80*
공포	.31(.52)	.26(.43)	.43(.67)	.25(.39)⁻	.31(.52)⁻	2.49	.82	.55
편집증	.79(.81)	.67(.67)	.86(.91)	1.07(.95)	.60(.61)	1.08	.24	8.12*
정신증	.69(.70)	.56(.61)	.67(.75)	.91(.79)	.64(.62)	.46	2.36	3.39
전체	.90(.58)	.73(.54)	.96(.60)	1.09(.60)	.86(.55)	.04	2.09	7.56**

주) 굵은 숫자의 +는 고교생의 기준집단(김광일 등, 1984)³⁾에 비해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득점, -는 낮은 득점을 가리킴 (독립 t검증, 남자고교생 df=934 및 여자고교생 df=1060), ()속은 표준편차.

*p<.05, ** p<.01

〈표 3〉 '나쁘다' 집단과 '괜찮다' 집단#간의 정신건강진단결과의 9개증상특점

집단 \ 증상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증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전체
나쁘다	.55(.42)	1.28(.74)	1.02(.72)	.90(.75)	.66(.74)	.88(.77)	.27(.45)	.61(.73)	.56(.68)	.76(.55)
괜찮다	.78(.52)	1.56(.72)	1.36(.74)	1.24(.81)	.95(.82)	1.15(1.00)	.35(.58)	.97(.85)	.81(.70)	1.04(.59)
t	3.39**	2.63**	3.24**	3.05**	2.53*	2.11*	1.05	3.17**	2.55*	3.36**

#: '나쁘다' 집단은 doc<.33(n=95)인 경우이며, '괜찮다' 집단은 doc>.33(n=96)인 경우를 가리킴

* p<.05, ** p<.01

doc=doa/2 + dob/2

논 의

일탈행위에 대한 비허용성의 정도는 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인 U형의 변화가 있음(송명자 등, 1987)¹²⁾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경향이며, 이러한 사실은 종단적 연구(김상운, 1993)⁸⁾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허용성이 증가(비허용성의 감소)한 것은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된다. 그러나 설문을 통해서 제시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일탈행위들에 대해 개인 및 사회인습영역으로 구분하여 허용적으로 보는(‘괜찮다’ 반응) 경향성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닌 피험자 자신의 경우에는 어떠한가에 대한 물음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또는 남녀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피험자의 반응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경우와 피험자 자신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후자가 전자에 비해 더 행동차원에 가까운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피험자는 설문형식에 따라 그 반응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점이 앞으로의 심리사회 및 도덕판단 등의 반응 수집과정에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심리발달적 과정에서는 이러한 반응상의 격차가 이행기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김상운, 1984)⁴⁾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중학교에서는 여학생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허용성의 변화에 있어 이행기 즉, 과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자료의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척도의 9개 증상별 득점을 구한 것은 고교생의 경우 기준집단(김광일 등, 1984)³⁾의 것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건강하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건강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이 발달적 이행기에 동일하게 놓여있다는 증거와 일치된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경우와 피험자의 경우 모두에서 동일하게 허용성이 높게 나타남은 다시 말해서 허용성의 증가(비허용성의 감소)가 확실히 자리잡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김광일 등(1984)³⁾의 기준집단에서는 적어도 정신건강의 지표상으로는 이러한 남녀간의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이야기 주인공의 입장과 피험자 자신의 입장에서 도덕적 허용성의 차이가 생기는 것과 상대적으로 낮은 정신건강지표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건강의 지표와 일탈행위에 대한 허용성의 정도 사이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일탈행동에 대한 허용성이 높은 청소년이 허용성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 진단 결과의 9개 증상 득점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즉, 정신적으로 건강할수록 일탈행위에 대해 나쁘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종래의 인지적 도덕판단 발달이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Kohlberg(1980)²⁵⁾는 도덕성에는 인지와 감정과 행동이라는 세가지 격차가 있으며, 그 중에 감정적 차원은 판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함을 인정한 바 있으나, 도덕성의 인지적 특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매개 변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되지 못했다. 일찍이 Turiel(1973)³⁶⁾도 청소년의 도덕발달에서 발견되는 퇴행현상을 두고 다음 단계로 발달이 일어나기 위한 이행기의 특성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틀로서는 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일탈행위에 대한 허용성의 지속적인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인지적 도덕 발달 이론에서 기대하는 대로 비록 허용성이 증가한다 해도 그 판단의 인지구조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

으나, 도덕 발달 이론의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에 비해 이론적 기반이 약함(Gibbs, 1980)¹⁸⁾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허용성의 증가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허용성의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건강 요인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도덕발달 평가에 있어 구조적 틀을 벗어나 감정과 행동적 차원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정신분열증, 범법자, 성격장애 등에서 도덕적 수준 저하를 보이는 것과 정신증상이 상관성이 있음을 지지한다.

참 고 문 헌

1. 권영숙, 오상우: MMPI검사에 나타난 정신분열증 환자와 치료감호 환자의 역할취하기 능력. *임상심리학회지*, 7:62-74, 1988.
2.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고교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I). *정신건강연구*, 1: 1-40, 1983
3.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간이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4
4. 김상윤: 한국인의 도덕판단발달에 있어 자타격차. 미발표 논문, 1984
5. 김상윤: Kohlberg의 도덕발달 단계이동에 대한 종단연구. *부산교육학연구*, 2: 81-94, 1985
6. 김상윤: 도덕 및 인습적 일탈행위에 관한 아동의 상호작용적 개념발달. *고신대학논문집*, 18:185-200, 1990
7. 김상윤: 도덕 및 거래적 상황에 대한 아동의 판단양식. *아동연구*, 1:57-71, 1992
8. 김상윤: 아동기에서 초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도덕사태개념화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2:1-18, 1993
9. 남정현, 김이영, 김광일: 정신분열증 및 인격장애환자의 도덕발달 비교 연구. *정신건강연구* 6:213-220, 1987
10. 문은영, 윤진: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44-63, 1993
11. 송명자: 자발적인 소집단토론이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당논총*, 4: 9-42, 1979
12. 송명자, 김상윤: 아동의 도덕적 사태에 있어서의 사회인습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140-149, 1987
13. 송명자, 조용하, 설기문, 김상윤: 한국대학생의 도덕사태 개념화 및 그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II). *학생연구 동아대학교*, 20: 5-23, 1992
14. 이나영, 남정현, 김학렬: 교도와 감호중인 범법자간의 도덕발달에 관한 비교 연구. *신경정신의학* 28:352-359, 1989
15. 이춘재, 오가실, 정옥분: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 89-102, 1991
16. 이춘재, 박금주: 자기상(Self-Image)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I) :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1994
17. Freud, S: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In Sigmund Freu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22 pp5-182, London:Horgarth, 1964 (first published, 1932)
18. Gibbs J: Kohlberg's moral stage theory: A Piagetian Revision. *Human Development*, 22:89-112, 1980
19. Gilligan C: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20. Hoffman ML: Moral development in MH Bornstein & ME Lamb(Eds.), *Developmental psychology*. NJ:

- Lawrence Erlbaum, pp279-324, 1984
21. Holstein CB, Boucher C: Irreversible, stepwise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47: 51-61, 1976
22. Keasey CB: Experimentally induced changes in moral options and reas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30-38, 1973
23. Kohlberg L: A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moral education. *The Humanist*, 13-16, 1972
24. Kohlberg L: 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Revisited. In PB Baltes & KW Schaie(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NY: Academic Press, 1973
25. Kohlberg L: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I, Part I, Harvard University, 1980
26. Leahy RL: Parental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 and self-image disparity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 580-594, 1983
27. Nucci LP: The development of personal concept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concept. *Child Development*, 52: 114-121, 1981
28. Park JK: Reaction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o Dilemmas Calling for Moral or Conventional Resolutions.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Iowa, 1981
29. Parker JG, Asher SR: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611-621, 1993
30. Piaget J: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Y: Free Press, 1932
31. Rest JR: Longitudinal Study of the Defining Issues Test for Moral Judg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6: 738-748, 1975
32. Shweder RA, Turiel E, Much NC: The moral intuitions of the child. In JH Flavell & L Ross(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33. Smetana J: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1981a
34. Smetana J: Reasoning in the Personal and Moral Domains: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s Decision-making Regarding Abor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 211-216, 1981b
35. Song MJ, Smetana JG, Kim SY: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577-582, 1987
36. Turiel E: Stage Transition in Moral Development. In RM Tra(Ed.) *Secon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Chicago: Rand McNally, pp732-756, 1973
37. Turiel E: The Development of Social-Conventional and Moral Concepts. In E. Turiel(Ed.)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38. Turiel E, Smetana J: Social knowledge and action: The coordination of domains. In WM Kurtines & JL Gewir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Y: Wiley, pp261-282, 1984